P-76

18년 만에 재발한 미세변화 신증후군 1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내과학교실

박선욱 · 홍수민 · 나현희 · 고행일

A Case of Minimal Change Disease Recurred after 18 Years

Park Sun Wook, Hong Soo Min, Huyn Hee Na, Haeng Il K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Paik Hospital

배 경 : 소아 청소년기 미세변화 신증후군에서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에 약 5% 미만에서 성인기까지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지속될 수 있지만, 이미 소아 청소년기에 관해에 도달하여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발이 없으면 완전 관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증례는 18세에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진단 받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재발 없이 지내다 18년 후에 다시 재발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18년 전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진단 받고 완전 관해에 도달한 후 재발이 없었던 36세 남자 환자가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전신 부종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은 140/80 mmHg 이었으며, 혈액검사에서 BUN/Cr 18/1.0 mg/dL, Total cholesterol 406 mg/dL, Albumin 2.1 g/dL 이었다. 소변검사에서 Protein 3+ 이었고, 24시간 소변 단백은 20 g 이었다. HBV Ag, HCV Ab, HIV Ab 음성 이었고, FANA, C3, C4, ASO titer는 모두 정상 범위 였다. 신증후군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으로 진단 되었다. 프레드니솔론 60 mg을 시작하였고 2주 만에 소변검사에서 Protein 음성으로 되었으며 혈액 검사에서 Albumin 3.7 g/dL, Total cholesterol 175 mg/dL로 측정되었다. 현재 15주째 프레드니솔론 60 mg을 유지하면서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 일반적으로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마지막 재발로부터 재발 없는 기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발에 대한 위험도는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드물게는 소아 청소년기의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어른에게서 재발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들은 18세에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진단 받고 관해에 도달한 후 약 18년 만에 다시 재발한 증례를 경험 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Key Words : 미세변화 신증후군
Minimal Change disease